

제약바이오 인사이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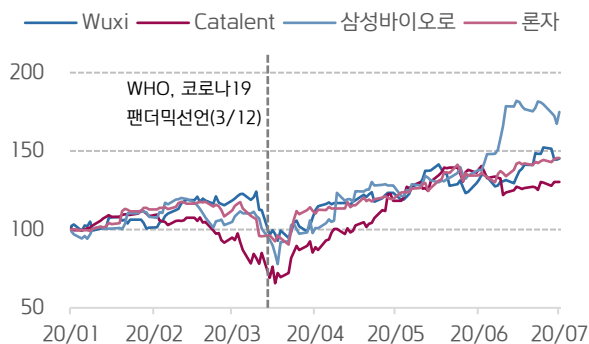
제약바이오 Analyst 허혜민

02)3787-4912, hyemin@kiwoom.com

CMO, 공급부족으로 CAPA 확보 전쟁

하반기 코로나19 백신/치료제 긍정적 데이터 발표되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제조시설 CAPA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함. 그러나, 바이오로직스 생산제조시설 CAPA 확대에 최소 1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급 부족 심화로 CAPA 확보 전쟁이 예상됨. 실제 CMO 업체들은 2분기부터 공급계약 증가 및 CAPA 확대하고 있음.

CMO 업체들 주가 누적 수익률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CMO 업체 수주 동향

회사명	COVID 관련	비고
삼성바이오	VIR 치료제 등	· 상반기 체결 건수 7건. 금액 총 \$1.6bn. 주로 4~6월 계약 집중됨. · 유럽/스위스/미국 소재 제약사.
론자	Moderna 백신 등	· 상반기 7건 체결. 주로 5~6월 계약 집중됨. · 모더나 COVID19 백신 10억 도즈 생산 체결.
우시	VIR, 글로벌 백신 리더 등	· 미국 제조시설 10년 임대 계약(6,000 L), Bayer의 독일 제조시설 인수 등 CAPA 확장. · 글로벌 백신 리더와 \$3bn 계약 체결.

자료: 각 사 홈페이지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◎ 코로나19 치료제/백신 공급 부족 전망

>> 하반기 코로나19 백신/치료제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되면, 이로 인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 공급 부족이 전망됨. CAPA 확장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.

- Duke Margolis 센터, 미국에서 한 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위해 260,000 도즈, 비입원 환자 480만 도즈, 확진자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 2천만 도즈 이상 필요. *수요 추정은 보수적으로 현재 코로나19 유행에 환자 당 단일 mAb 도즈 가정. 그러나, 현재 수요는 입원환자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.

◎ 치료제 대부분 자체 생산 의존하고 있어, 향후 공급 부족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 CAPA 확장에 시간 소요

- >> 미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주는 백신 생산과 달리 코로나19 치료제는 대부분 CMO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개발/생산.
 - Duke Margolis 센터는 미국내에 mAb 생산의 78%가 자체 제품 제조라고 언급.
- >> 바이오로직스 생산은 빠르게 CAPA 확장 안되며, 최소 1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급 부족 심화될 수 있음. 게다가, 이미 CAPA 확보한 업체와 효능/백신 입증된 제품 간의 공급 매칭이 잘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- >> 이러한 상황이라면 Vir 임상 실패하더라도 삼성바이오와 확정 계약한 CAPA를 다른 업체에 되팔 가능성도 있어 보임.
- >> Duke Margolis는 곧 단기 CAPA가 다 찰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의 제조/공급 분배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.

◎ 실제로 CMO 업체들의 공급계약 2분기에 집중됨

- >> 삼성바이오로직스, 상반기 총 7건 수주 계약하였고, 누적 금액 \$1.6bn로 2분기에 계약 집중됨. 공시에 표기된 3공장 공급은 올해 4건으로 누적 금액 \$862mn임. 3공장 수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추측.
- >> 론자,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0억 도즈 생산 계약 체결. 대부분 5~6월 공급 계약 체결하였음.
- >> 우시, Bayer의 독일 제조시설 인수 및 미국 제조시설(6,000L) 10년 임대 계약을 맺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섰다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7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